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올해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오로지 승자만이 인정받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을 치유하는데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성교육이 유지원생이나 초·중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중심의 교육에 머무른다면,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과 함께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인성, 즉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성 회복의 관점에서 가정과 학교, 직장, 동네 등의 크고 작은 규모와 다양한 성격의 지역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는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환경 교육에서도 인간이 형성한 도시를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유기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강의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룬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인성교육이나 인간성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이기적 개발행위는 더 이상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이 도시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자동차와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잠식해 버린 정주공간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도시에서 타인, 공동체,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생태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는 도시계획적 시도로서 도시의 사회문제가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및 토지 이용,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심 속 자연의 보전과 복원 등을 강조한 미국의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일본의 도시환경주의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아울러, 최근 국내의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업 등도 상실되어 가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개념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끊임 없는 노력이 전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장소로 연결된다면 현 세대의 당면한 많은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의료칼럼



박성완 세계로병원 신경외과 원장

얼굴 떨림(안검경련)은 중풍의 전조증상인가? 갑자기 눈 밑이 파르르 떨려서 중풍의 전조증상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얼굴 떨림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안검경련과 반측성 안면경련, 눈꺼풀연축 등이다. 일반적으로는 중풍, 뇌졸중과 관계가 없다. 얼굴떨림은 한쪽 눈꺼풀 또는 눈꺼풀 아래 부분이 파르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발생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부위 또는 반대 측 눈 주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몇 시간 혹은 몇 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

얼굴 떨림

고 본인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흔히 과로나 잠을 못 잤을 경우, 신경을 많이 쓴 경우, 과음 후에 주로 나타난다. 또 여성들의 경우 갱년기 때 많이 나타나는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도 얼굴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 담배, 커피, 콜라, 차 등 카페인 함유된 음료를 많이 마심으로 인해 갑술이나 마그네슘 부족과 같은 몸의 전해질 이상이 생길 때에도 발생한다. 이 눈꺼풀 떨림 증상은 남자보다 여자가 3배 정도 더 많고, 평균연령은 56세 이상에 주로 나타나며 35세 이전에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려면 평소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 카페인 섭취를 줄이거나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좋다. 마그네슘 섭취를 위해서는 견과류와 고등어·청어·연어 등 생선류, 현미나 보리 등 잡곡류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수주 이상 지속되고,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진찰을 받아보도록 권장한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처음에는 눈 주위, 특히 아래 눈꺼풀 주위에서 시작하는데 당겨지는 느낌 또는 한쪽 눈을 찡그리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며 같은 쪽의 볼 그리고 입술도 같이 수축하며, 반쪽 얼굴은 심하게는 형태로 진행된다.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같은 쪽 목 근육도 당겨 올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며, 이 경우는 초기부터 근육 수축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본다. 사람을 직접대면하거나 긴장할 경우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0.8명 정도의 발생빈도를 보이며, 가족력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유전적인 증거는 없다. 원인은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안면신경)이 뇌 속에서 혈관이 눌렸기 때문에 발생한다. 드물게 뇌종양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진단은 환자의 병력과 MRI나 MRA, CT로 안면 신경의 혈관 압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치료는 약물치료, 보톡스 주사요법, 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약물치료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보

톡스 주사요법은 유용하나 평균 3~4개월 정도 효과를 나타내므로 반복수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중 수술요법은 현재 미세 혈관감압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전신 마취 후 개두술을 통해 뇌혈관에 의해 압박되고 있는 안면 신경근 진입부를 확인한 후 신경을 혈관과 분리시켜주면 된다. 수술의 효과는 약 90% 정도이며, 재발률은 10% 미만이다. 눈꺼풀연축은 양쪽 눈이 감겨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인데, 눈을 자주 깜빡이는 증상과 안구건조감이 동반되다가 심해지면 양쪽 눈이 감겨서 눈을 뜰 수가 없다. 이것은 근긴장이상증이라고 하는 운동질환의 하나이다. 드문 질환이지만 시력이 있는데도 기능적으로 실명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치료로 항콜린제라는 약물을 복용해 시력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보톡스주사로 눈꺼풀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으며, 보톡스의 경우는 3~4개월 정도의 반복주사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뇌심부 자극수술이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져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뇌수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기 고



이상옥 (사)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

10년 전인 2005년 광주엔 결혼이민자 1100여명이 갑자기 밀려들었다. 광주 YMCA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가와 사회복지관계자들이 모여 이주여성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주가족복지회, 광주이주여성지원상담센터를 창립하였다.

국내 이주 외국청소년에게 관심을

년 2015년 3월, 운영위원회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상담하는 이주배경청소년비전센터 개설을 의결하였다. 10년 전 이주여성이 갑자기 밀려오듯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국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이다.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부모를 따라 온 청소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외국인 부모나라에서 살다가 온 청소년, 외국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정착한 청소년, 근로와 학업을 위해 입국한 청소년, 제 3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청소년, 그밖에 한국에 이주하여 정착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법무부 통계(2015.2.28)에 의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

기본법 해당)은 광주에 4281명이 살고 있으며 19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 보호법 해당)은 550명이 살고 있다. 국내 입국 전 대부분 어머니 나라에서 살고 있던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에 왔거나,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가 뒤늦게 새아버지에게 입양(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며 13세 미만은 법적대리인의 동의로 가능하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들어온 이주배경청소년들은 10년 전 이주여성들처럼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입국한다. 한국으로 재혼해 온 엄마들은 떼어 놓고 온 자식들을 걱정하며 환경이 더 좋은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들의 입양이나 입국을 허락한 새 아빠는 대부분 엄마가 이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비 등을 부담할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들 엄마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가정교육, 인성교육 등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한국어를 모르니 즉시 보낼 수도 없다. 이주가족복지회, 이주배경청소년비전센터는 지난 3월16일 이들이 입학 전에 다닐 수 있는 예비학교 '레인보우 스쿨' 입학식을 가졌다. 이들은 주 5일 매일 6시간씩 한국어, 한국문화, 영어, 음악, 체육, 체험 등을 공부한다. 4개월 동안 배우면 일반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부모나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1회에 한해서 4개월 더 공부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식은 한국에 살려고 온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큰 장벽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 핵심은 '역지사지'의 마음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떨림과 함께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살리게 한다. 그러나 이맘때쯤 초등학교부터 중·고교생까지 우리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며 특히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평소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닌 범죄이며 우리의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감안해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폭력 전담부서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 등의 예방활동과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의식변화와 사람들이 이기기 위한 경쟁보다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에는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 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사태를 성찰해볼 것을 권유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갈등과 혼란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것

은 아니지만 갈등을 완화하여 나를 돌아보고 현실을 유연화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면 서로 손익의 고에 대상이 서로 바뀌기도 하는 학교폭력. 보통 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며 앞만 보고 달려 나가는 폭주기관차 같은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특히 의혀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다. ▲배진영·광주 서구 상무동

社說

인구 적은 전남에 예산마저 경제논리라니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기로 해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 배분에도 시장논리를 반영,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그만큼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전남도가 신규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0대 과제와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지침 중 눈여겨볼 대목은 재정 지출 비효율 차단이나 신규 조세 지출 규모 300억 원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다. 쉽게 말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면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전남도는 예산상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인구 190만5780명에서 불과 3개월 만에 3000여 명이 줄었고, 190만 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전남도가 16개 정부 부처에 건의한

내년도 사업은 222건에 2조6330억 원 규모이며 신규사업도 145건에 5399억 원에 달해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나라살림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강화된 정부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특히 열세 낭비가 유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에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예산을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언급처럼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투입된 예산 대비 창출될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다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수혜를 입는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만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쟁의 중요한 가치인데도 영호남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예산 배분에 경제논리보다 상대적 낙후도를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하는 이우다.

광주역 '공동화' 광주시·정치권 책임 무겁다

광주역 일대가 지난 2일부터 호남고속철도(KTX) 진입이 끊기면서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역은 현재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만 운행해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이용객이 1000명대로 떨어졌다. 주변 상권은 손님이 크게 줄어들자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가게 문을 닫는 곳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호남고속철 개통 이전 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주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그동안 호남선 KTX의 광주역 진입을 전제로 광주역 폐쇄를 반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광주시가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화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광주역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할 경우 강 의원과 마찰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을 미뤄 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국회의원의 말을 믿은 상인들과 주민들만 낭패를 본 셈이다. 특히 광주시는 호남고속철 노선과 거점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송정역에 진입한 KTX 일부를 광주역으로 연결하는 스위치백 방식에만 매달려 왔다. 더욱이 당시 국토부가 광주역 진입은 안 된다는 데도 별도의 대책은 세우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광주시와 북구청, 지방의원 등은 광주역을 폐쇄하되, 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당장 광주역 재생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계획 수립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발길이 끊긴 광주역 일대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광주시는 도심 재생에 초점을 맞춘 용역을 서둘러 발주해야 한다. 광주역이 슬럼화된다면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無等鼓

중국에선 요즘 '여우 사냥'이 한창이다. 작전명은 '여우 사냥 2014'.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로 재산을 빼내 도주한 부패사범에 여우라는 이름을 붙여 검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시작된 '호랑이와 파리 사냥'에 이은 2차 사냥이다. 지금까지 포획(?)한 부패사범은 680명에, 몰수한 재산만 30조 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비리사범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3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

다. 시진핑은 2013년 주석 취임 직후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을 호랑이로, '부패한 하위직 공무원'을 파리로 칭하면서 부패사범 사냥에 나섰다. 여우 사냥은 영국의 시골에 많은 여우가 서식해 양계장 등에 피해가 끊이지 않자, 가을에서 겨울까지 대대적으로 여우를 퇴치한 것이 기원이다. 17세기 찰스 2세 시대에는 스포츠로 각광받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부패사범에 대한 검거 작전이 진행 중이다. 국방비를 빼먹은 전현직 군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 비리로 인해 전직 참모총장 등 고위급

'여우 사냥'

도 새마을 사업의 하나로 전국민 취직기 운동을 벌였다. 현재 도 농협에서는 쥐가 AI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매개체라는 이유로 연중 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군량미를 훔친 군인은 공장으로 다스렸으며 세 번 훔친 자는 참수형에 처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쌀 몇 가마니를 빼먹었다가 사형까지 당한 것이다. 군량미 절도는 신뢰와 사기에 악영향을 미쳐 군대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때문이다. 지금의 방위사업 비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채희중 사회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